

가정학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 동향과 과제

-가족학을 중심으로-

유 영 주*
김 진 숙**

- I. 연구의 필요성
- II. 가정학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의 동향
- III. 가정학에 있어서 청소년 연구의 과제
- IV. 결 론

I. 연구의 필요성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한다는 것은 홀로서기를 위해서이다. 특히 청소년기란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시기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해가는 과도기로서뿐만 아니라 인생의 한 발달단계로서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연령, 신체적, 생리적 성숙도 및 심리적 성숙도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기란 아동기가 끝나는 약 12세부터 23~24세까지를, 신체적 성숙도를 기

준으로 했을 때는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때를, 그리고 심리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아정체감이 확립하는 때를 말한다.

특히 청년기는 시간적으로 장기간 지속되어 중·고·대학교시기에 해당되며, 교육적 전지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청소년의 행동이 가정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교육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며, 청소년의 행동이 야기시키는 사회적 문제를 통제·조종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은 국가의 중요한 장래의 인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시기의 청소년기 자녀들이 가정에서의 부모의 이해부족과 학교에서의 입시위주의 지식중심 교육, 사회에서의 인식부족등으로 많은 문제를 유발 시키게 된다.

*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또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비행은 1980년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는 조직화, 흉악화, 폭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가정, 학교, 사회의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외국의 청소년에 비해 아직은 굳건히 성장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 역시 미약한 셈이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효'라는 전통적 가치관과 가정은 그래도 청소년에게 거친 세파의 최후의 보루라는 의식이 잔존해 있기 때문이다. 가정은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1차적 환경이며 부모는 심리적·과정적 역할 대행자이다.

따라서 여러 분야에서 청소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가정의 중요성 특히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가정학에서의 청소년에 관한 연구의 핵심적 영역이며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심층적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II. 가정학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의 동향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아동기에 비해 적었으나, 1980년대에 와서는 그 양상이 달라졌다. 최근 연구경향이 평생연구의 방향으로 나아감과 더불어 많은 연구자들이 인생에 있어서 뚜렷한 특색이 있는 제2기로서의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본 고찰에서는 청소년에 관한 연구를 가정학을 중심으로 성·성교육, 결혼관, 가족가치관, 부모자녀관계, 자아개념 및 자아정체감, 성역할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성·성교육

1) 성에 대한 태도·성행동

오늘날 청소년세대는 전 세대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일찍 어른의 신체구조를 갖는다. 성숙의 가속화현상으로 성적 욕구를 갖게되어 성이 만족의 근원이기도 하며 좌절과 문제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는 청소년이 성적으로는 성숙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이다. 성에 관한 연구는 동일한 행동이 아주 다른 동기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성에 대한 본인의 태도와 가치관과는 관계없이 성행동이 일어날 수도 있기때문에 성을 태도와 행동으로 구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고교학생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이성교제를 대부분이 희망하고 있으며(강준상, 1971; 정성채, 1981) 혼전순결에 대한 태도는 1976년 오옥자의 연구는 여고생의 95%가 혼전순결을 지지하고 있으며, 정성채의 연구에서는 81.3%가 지지하고 있다. 시각장애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매우 높았고, 초경과 몽정의 시기는 시각장애와 아무 관계가 없었다. 여학생의 경우 혼전 성관계를 반대했으며, 생리에 대한 지식의 출처는 학교와 책이었다(김정옥·고은애, 1987). 이계화(1988)의 연구에서는 순결에 대해 68.5%만이 남녀 모두 꼭 지켜야 한다는 응답해 순결에 대한 의식이 희박했으며, 생리현상에 대해 여학생은 귀찮다(48.5%)고 했으며, 남학생은 자연스런 현상(78%)이라 응답하여 비교적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학생의 경우 재학중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높게 나타내고 있으며,

혼전의 순결을 요구하고는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관용성도 보여주고 있다.

유영주(1976)의 연구에서는 남자는 혼전 성관계가 별 문제가 아니라고 답한 것이 48.8%로 높는데 비해 여자는 절대 안된다가 60.7%로 높게 나타나 이는 우리 사회의 남녀 차별적 성의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김철자(1977)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서 여성의 순결은 절대적이다라고 보는 비율이 높아서 자신들의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관용적이면서 여성에게는 엄격히 요구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었으며 김혜선, 신양재(198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일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김혜선·김영희(1983)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이 연애힘을 희망하며, 애정을 전제로 한 혼전성교에는 허용적이었다. 한국 여대생은 이성교제의 기회는 많으나, 결혼전에 많은 남성과 사귀고 싶지 않다(50.4%)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혼전 성교에 대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전통적인 태도가 28%,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55.2%, 긍정적인 태도가 15.1%로 나타났다(김혜선·김영희, 1984). 김혜선, 신양재의 연구에서는 혼전 성관계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높으며 결혼전의 순결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기대를 나타내고 있어 여성은 순결을 지켜야 한다(82.5%)가 남성은 동정을 지켜야 한다(70.3%)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관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나타내도 이성교제에는 허용적 태도를 가져, 이성교제에 대한 찬성이 64.5%를 나타냈다.

연구결과를 보면 성에 대한 태도는 생리현상, 이성교제, 혼전순결 등으로 요약되며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교생들도 이성교제를 대부분 희망하고 있으며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80

년대에 와서 순결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가는 경향이었고, 또한 남성에게는 관용적이면서 여성에게는 엄격히 요구하는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다.

성행동을 살펴보면 이성교제를 경험한 사람은 전국 남녀 중·고교생 4,116명을 대상으로 한 강준상의 연구에서 남자 54.2%, 여자 43.6%였다. 1988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14.9%)보다 안하는 학생(85.1%)이 많았으나, 과반수 이상이 이성교제를 희망하고 있었다(이계화). 그러나 정현아(1984)는 대학생의 경우 65% 이상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성과의 경험이 있었으며, 처음 데이트하는 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김혜선, 김영희(1984)의 경우 연애힘기간중 성행동에 대한 허용범위는 입맞춤, 핏팅, 성교 등 육체적인 접촉을 허용하는 경우가 60.5%이지만 대부분 입맞춤등 가벼운 접촉만을 허용하고, 성교를 허용하는 경우는 3.4%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경험자 비율은 미국이나 그외 외국에 비해 아직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Zelnik & Kantner, 1977) 19세 이하의 여성의 성경험자의 비율은 1971년에는 26.8%인데 비해 1976년에는 34.9%이다. 대학생 대상의 연구(Simon, Berger & Gagnon, 1972)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 56%, 여자의 경우 32%가 성교경험자였으며 대개 1학년에서 2학년사이에 경험하는 비율이 급증했다. 그러나 최근 송재희(1989)의 연구를 보면 첫 데이트시기가 빨라지며, 실제 성경험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성행동에 관한 연구는 성에 관한 태도와 병행하여 이루어졌으나, 성에 관한 태도의 연구에 비해 그리 많지 않았다. 성행동은 이성교

제, 입맞춤, 핏팅, 성교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아직까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성경험 비율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으나, 증가 추세에 있고 요즈음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성문제에 비추어 청년기 성행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성교육이란 남녀 일반의 성적 특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남녀가 각자 자기자신을 성적 욕구가 있고, 성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가서는 이성을 배우자로서 선택하여 원만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며 성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과정이다(이춘재외, 1988).

성교육에 관한 연구는 성교육의 필요성과 성교육의 운영실태, 그리고 성교육의 내용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체계적인 성교육을 원하고 있으며,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건전한 도덕가치관 확립, 성경험에 따르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교육등 포괄적인 인간교육으로서의 성교육이 학교교육 과정에서 시급히 강화되어 실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학생, 교사, 부모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조재명, 1981; 엽복섭, 1982; 진영옥, 1983). 성교육의 실시는 성가치관이 혼돈에 빠지기 쉽고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혼돈과 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다.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조재명은 타당한 이성인식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였고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내용이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

성교육의 실시시기는 가능한 한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나 많은 교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으므로 성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엽복섭). 성교육의 지도방법으로는 가정과 교사가 가정시간에 성교육 내용을 적절히 안배되 필요에 따라 특별강의를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진영옥은 가장 효과적인 수업형태는 시청각교재를 사용한 일제 강의식이며 성교육의 시기, 내용, 방법등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지도방안의 정립이 요망된다고 하였다. 성교육의 담당자로서 가정교사, 전문가, 여교사, 담임교사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교원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조재명, 엽복섭).

성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들은 피임법, 성병, 임신중절, 가족계획, 배우자선택, 기초 성지식, 남녀의 성차의 순으로 희망하고 있으며(경북교육위원회, 1982) 중학교에서는 신체발달의 개인차, 이성에 대한 이해, 예절, 남녀 역할, 수정, 출생, 생명의 존엄성, 남녀교제, 성역할, 성행동, 성병등을 고등학교에서는 성기의 구조와 기능, 성행동, 순결, 성욕, 사랑과 책임, 미혼모, 결혼, 가족과 가정생활, 임신, 출산, 육아와 부모교육, 가족계획, 인공임신중절, 모자보건등에 관한 내용들을 선정하였다(김정옥, 1988). 또한 조재명은 중학교에서는 신체의 변화, 이차성징, 월경, 몽정, 수정, 임신, 출산, 이성교제, 성욕, 순결, 태의 성장, 성사고 예방, 가족계획등을 고등학교에서는 자위, 성고민 해결, 결혼, 피임 등의 내용을 선정하였다.

성교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필요성은 학생, 부모, 교사 모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중·고교의 교과서에는 성교육의 주요 요소들이 상당부분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고 청소년들의 성 성숙도와 맞지 않는 일면도 있었다. 또한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교사들이 지도방법을 잘 모르므로 세부적인 지침마련과 아울러 성교육 담당자 특히 가정과 교사들의 체계적인 재교육을 실시해서 성교육의 실시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했다. 성교육의 내용으로는 중학교에서는 신체발달, 남녀교제, 성행동, 수정, 임신, 출생등을 고등학교에서는 결혼, 피임, 가족, 인공임신중절, 육아와 부모교육등을 선정하였다.

2. 결혼관·가족가치관

가족의 가치관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결혼하기까지, '즉 배우자선택과 결혼관에 관한 연구와, 가족을 형성한 후의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 연구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1) 결혼관

결혼관에 관한 연구 동향을 보면 대학생은 행복한 결혼을 인생의 최고목표로 두고 있고, 배우자의 조건으로는 인품과 성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음으로 애정, 건강, 장래성등을 중요시 했으며 배우자 선택방법은 본인이 선택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는 방법을 지지했다. 결혼적령은 남자는 27~29세, 여자는 24~26세라고 한다(김철자, 1977). 남녀 대학생의 배우자 선택의 조건은 개인의 성격, 애정, 건강이며, 연애결혼을 원하며 결혼에 대한 인식도 높았다. 결혼연령은 남자는 27~28세, 여

자는 23~25세라고 한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부부가 함께 직장생활을 하는 데에 찬성율이 높았고 시부모와는 조건부적인 일시적 동거를 원했다(문혜숙, 1978). 한편 고정자(1979)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와의 연령차는 3~5세를 원하며, 배우자선택의 조건은 성격, 건강, 교육, 생활력 등의 순이며, 절충식 결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자대학생은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과반수로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다. 결혼적령은 24~25세라고 하고 연령차이는 2~4세를 원하며, 결혼방법은 연애결혼과 중매결혼에 대한 기대가 각각 반정도의 분포를 보인다(조영숙, 1980). 여공과 여고생의 결혼관을 연구한 김미숙(1987)은 결혼에 대한 태도, 동기, 과정등을 조사하였다. 결혼에 대해서는 여고생보다는 여공이 더 긍정적이었으나, 33.7%가 결혼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직업이나 학문에 몰두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결혼의 동기는 남녀의 애정으로 결합된 가정설립을 위한 것이고, 배우자 선택 조건으로는 성격, 건강, 능력, 직업, 학력의 순이었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가능하면 한다가 지배적이었다(김미숙). 그러나 생활능력이 있고 불편한 점이 없다면 안해도 괜찮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사주와 궁합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며, 궁합을 보는 경향이 높아졌다(송재희, 1989). 배우자의 조건으로는 성격, 건강, 외모, 장래성 등의 순이었고, 결혼후 맞벌이를 원하는 결혼에 대한 예비교육을 희망했다. 김혜선, 김영희(1984)는 여대생들이 대부분 연애혼을 원했고, 배우자의 조건으로는 성격, 애

정, 건강 등 인간의 내면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1983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86.2%가 결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결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고, 결혼의 동기로는 사랑하기 때문이 가장 많았다. 배우자 선택은 상호 절충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고, 조건으로는 진실성, 사랑, 정직성, 건강, 순결 등이며, 용모, 동갑나이, 옷차림, 부모와의 동거 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김혜선·신양제). 여대생의 자아실현성에 따른 결혼관의 경향은 자아실현설이 높을수록 독립적이고 개인적이며 또 자아실현성과 상관없이 여대생들은 결혼후에도 취업을 원하는 경향이 높았다(정현아, 1984).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결혼의 필요성, 동기, 결혼형태, 연령, 배우자선택 조건 등이었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야된다는 긍정적인 태도와 생활능력이 있으면 안해도 괜찮다는 부정적인 태도가 있었다. 결혼의 동기로는 사랑때문이라고 했고, 결혼형태로는 연애결혼과 절충식결혼을 원했다. 배우자선택조건으로는 성격, 건강, 애정 등이 우선 순위를 나타내고 있어 개인적 특성이 중요시되는 애정중심적 결혼체제로 변해가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여학생의 경우 결혼후 직장생활을 원했다. 전반적인 결혼관은 근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사주나 궁합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전통적인 측면도 엿볼 수 있다.

2) 가족가치관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정효숙, 1978; 장근화, 1984; 김순옥·유점숙, 1984; 최영애, 1984; 김경희, 1984; 전영자,

1986; 최점화, 1986; 최혜경, 1987; 전미향, 1988; 고정미·서병숙, 1988)와 부모와 자녀간의 가치관 비교연구(박성연, 1986; 김경신, 1987; 1989; 김일명·김명자, 1989)가 있으며, 가족가치관의 영역으로는 가족형태, 가족관계, 교육관, 직업관, 인생관, 노동관, 부모관, 자녀관, 가장관, 조상숭배등 이었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가치관 연구에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가족가치관이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부모세대는 전통성을 자녀세대는 근대성을 지향하고 있으며(김경신; 김일명·김명자). 이는 Thompson & Spanier (1978)와 Smith(1982), Leavy & Hough(1983)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으나 Kalish & Johnson (1972)의 연구와는 상반된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가치관의 전달은 모녀간에 다소 잘 일어나나 그 정도는 미약하여 현대가족에서의 세대간 가치전달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부모자녀 개인간의 가치의 일치나 전달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신). 그러나 한편 박성연의 연구에서는 자녀관에 있어 어머니들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가치관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치관의 차이는 세대차이 보다는 개인이 속한 문화나 경험의 영향으로 보아야한다고 했다.

여고생과 여자공원들의 가족형태에 가치관은 확대가족이 29.2%, 핵가족이 70.8%였으며 여고생이 여자공원보다 가족형태에 대해 보다 근대적 가치경향을 보이고 있다(정효숙). 고교생의 인생관에서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진학과 학업 문제였고, 직업관에서는 취미와 소질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장근화). 최혜경(1987)의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직업관에 있어서 집단적인 경

향을 보였으며 인생관에 있어서는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정의와 부정의 개념은 변한다고 보았으며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가 학문을 쌓기 위해서라는 귀속적 가치관을 나타냈다. 김경희(1984)는 노동관에 있어서 직업청소년은 돈을 벌기 위한 객관적 유효성 지향적인데 비해 일반청소년은 취미에 맞기때문인 주관적 유효성에 지향되어 있고 미래관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직업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미래를 더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최점화는 청소년들이 부모자녀관계, 친족관계, 특히 형제관계에서 우리 특유의 전통적 가치의식을 수용하여 지속하려는 경향이었고,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강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수평적 관계를 회구하는 경향으로 전통적 사고와 서구적 사고와의 갈등을 보였다.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중 가장권과 조상숭배에 대해서는 전통성이 강했으나, 가계계승에 대해서는 약했다(박진숙, 1984). 한편 김일명과 김명자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은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 남자대학생은 전통성을 여자대학생은 근대성을 보였으며, 영역별로는 성역할, 조상숭배, 가부장권에 대해서 여자대학생의 의식의 뚜렷히 근대적 가치지향을 보였다. 고경미·서병수(1988)은 대학생의 효행에 관련된 내용중 공경의 효도요인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잘 실천되고 있는 요인은 자립의 효도였다. 또한 대학생의 효행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 성별, 출생순위, 가정교육,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연구결과를 보면 가족형태, 가족관계, 인생관, 직업관, 노동관, 미래관, 효에 대한 청소년

년의 가치관 연구와 부모와 자녀세대 가치관 비교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연구자마다 다양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전통성과 근대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세대 가치관 비교에서는 세대차이가 있다는 관점과 개인이 속한 문화나 경험의 영향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으며, 부모 자녀개 인간의 가치관의 일치나 전달력이 감소하고 있어 현대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는 새로운 자각과 노력을 통한 재구성이 요망된다. 또한 가족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연령, 세대, 성별, 생활수준, 거주지역, 출생순위, 종교, 가족형태등이었다.

3. 부모-자녀관계

1) 의사소통

청소년의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는 부모와 청소년자녀와의 언어적 대화 또는 의사소통의 원활한 정도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세대간의 차이와 입장을 의사소통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각자가 처해있는 난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부모와 청년기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8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은경(1984)은 사춘기 자녀들의 행동특성을 조정하기 위해서 상호간의개방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화의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숙과 유영주(1985)는 고2년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양태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학업, 학교 부모 및 가정에 대해서는 왕성한 대화를 하고 있으나, 성교육과 성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춘기자녀를

대상으로 오연옥(1987)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 부모들이 자녀들의 성적 성숙이나 성역할부분에 대한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연령이 적을수록 그리고 여학생이 부모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가족들과 여가활동을 할 때와 가정이나 친구,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이었다(장호선, 1987). 이경주(1989)는 의사소통과 자아개념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 자녀의 자아개념발달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될 수 있게하는 내용들을 선정해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김정희(1987)는 어머니와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이 수평, 협력적 쌍방통행식 일수록 자녀의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석현양(1983) 역시 부모-자녀간의 자유스런 토론식 의사전달 형태가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김진희(1989)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여학생일수록, 연령이 적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부가 전문관리직에 종사할수록 모의 직업이 없을수록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결남(198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여고생간의 커뮤니케이션 원활동도는 '중' 정도이며 내용충족도는 다소 낮은 편이나 직업관, 주생활영역에서는 만족도가 높았고, 가족관계, 성역할영역은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은 여학생들이 부모님과 의사소통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이향연; 오연옥; 장호선)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은 연구(Barnes &

Olson, 1985)가 있으며, 남학생은 아버지와, 여학생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도가 높다는 연구(정혜영, 1986; 옥선화, 1987)가 있다. 연령이 많을수록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장호선),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김진숙; 오연옥)와 차이가 없다는 연구(장호선)가 있다. 한편 이정우와 김규원(1989)은 청소년기자녀와 어머니간에는 쌍방개방형과 쌍방차단형의 의사소통의 유형이 가장 많았고 의사소통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의사소통 유형과 가정분위기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는 사회적 관념과 생활방식이 우리의 실정과 차이가 있어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가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몇몇 연구에서 성, 임신조절, 피임에 관하여 다루어지고 있다(Bloch, 1972; Rothenberg, 1978; Fox & Inazu, 1980).

부모와 청소년자녀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80년부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주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의 형태나 내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부모-자녀간에는 성적 성숙이나 성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았으며, 또한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개념과는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녀의 성별,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어머니의 직업유무 등으로 밝혀졌으나 특히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2) 역할

부모와 청년기자녀와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8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고성혜, 1982; 박길현, 1984; 김미란, 1985; 이순열, 1986; 유가호, 1986; 김행자, 1987; 이영석, 1988)가 대부분이다.

청소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아버지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직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고성혜). 자녀지도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영역을 학업, 직업, 친구관계, 성교육, 일상생활, 사회문제, 자녀와 밀접한 관계 형성을 위한 역할·부모로서의 신장을 위한 역할등으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아버지들은 아들의 이성교제나 성에 대한 지도에 적극적 역할이 요망된다고 결론지었다. 김행자는 청소년기의 인격형성, 남녀의 성역할관, 가치관 정립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심리적 접촉관계를 통한 부자관계만이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산업사회화에 따른 아버지의 교육적 역할무력화가 청소년기의 비행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즉 아버지가 가정생활에서 이루어야 할 교육적 역할 수행의 약화, 소극화, 부재성이 그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미란의 연구에서는 아버지들은 전반적으로 자녀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역할수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아버지의 직업, 교육수준, 경제수준, 종교, 가족형태, 자녀의 성별로 밝혀졌다. 이는 아버지의 학력, 소득, 직업과 같은 사회계층에 따른 문화적 요인이 아버지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는 Lynn (1974)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문계 여고생이 산업계 여고생보다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를 높게 했고,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 가정환경적 변인의 영향으로는 성장지, 부모의 연령 및 학력, 어머니의 취업유무로 밝혀졌다(이영

석).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중 아버지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아버지의 교육적 역할 수행의 약화가 청소년기 자녀의 비행과도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3) 기타

그외 부모와 청소년자녀와의 관계 연구로는 갈등 및 지각불일치(김경숙, 1987; 노영주, 1987)가 있으며,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화합도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에 관한 연구(박금희, 1986; 박초아, 1988)와 자녀가 부에게 미치는 영향(김서영, 1987)과 부모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관한 연구(노영남, 1982; 위영희, 1988)자녀의 부모 선호태도(김경신, 1986)등이 있다.

4. 자아개념·자아정체감

청소년기는 자신을 새로이 창조하기보다는 기존의 자신을 발견하는 시기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아개념의 발달은 자신을 독특하고 타인과 구별되는 분리된 실체라고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또한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확립의 결정적 시기로서 이에 따르는 어려움을 강조하여 정체감위기의 시기라고도 한다.

먼저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개념, 자존감은 청년기를 통해 연속적·체계적 양상으로 발달하며(Dusek & Flaherty, 1981), 가정의 물리적 환경, 가치지향성, 가족구성원의 성격, 심리적 과정이 자아개념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자, 1978).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은 관계가 있고(강원숙, 1983; 박성선, 1986) 청소년

의 금전관리 행동은 자아개념에 의하여 전반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황덕순, 1980), 건전한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전전한 환경으로 그 교육적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정의 의사전달형태가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고(석현양, 1983), 부모간에 협조적인 역할구조를 지니고, 부모의 역할에 대해 자녀가 만족하는 경우, 부가 자녀에 대해 능력에 적합한 기대를 하고 자녀의 요구에 허용적일 때 청소년의 가정적 자아개념은 긍정적이었다(김순옥, 1983). 자아개념과 가족 문화의식은 상관관계가 있으며(유점숙, 1983)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연구한 이재연(1983)은 심리적 양성성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음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기는 자아개념에 변화가 있고, 연속적, 체계적으로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아개념은 가정환경과 관련이 있어, 가정의 물리적·심리적 환경과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전달형태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가족문화 의식과 성역할 정체감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는 자아정체감이 독립변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와 종속변인으로 다루어진 경우로 분리되어 왔다. 독립변인으로 다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는 자아정체감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심리적 기능들과의 상관을 다루고 있다(윤봉숙, 1984; 허귀선, 1984).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자아정체감 형성의 결정변인을 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속변인으로 하여 결정변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가정의 심리적 환경변인과 자아정체감 발달과의 관계(김희영, 1986), 양육태도

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오경옥, 1986),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이연주, 1980)연구가 있다. 김선애, 연진영(1989)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친애적, 자율적, 민주적일 때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촉진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중 연령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이는 자아정체감과 연령단계와 관계가 없다는 윤봉숙의 연구와 시간적 역행현상을 보고한 김희영의 연구와는 다르다. Marcia(1980)는 4가지 자아정체감 범주와 관련해서 청년들의 인성특성을 알아 본 결과 뚜렷한 성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밝혔다. 즉 정체감 성취와 유예로 분류된 남성들은 자신감과 독립심, 융통성이 있고 유실로 분류된 남성들은 권위적, 고정관념적, 자기방어적임을 밝혔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정체감은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모의 양육태도,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태도와 성별, 연령등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에 관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있으므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5. 성역할

성역할이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남자 또는 여자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여러 특성 이룰때면 행동양식, 태도, 가치 및 인성특성을 의미한다. 성역할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이재선, 1987; 윤미현, 1984), 성역할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이재연, 1983; 이숙, 1984; 정옥분, 1986)와 성역할과 자아실현성과의 관계연구(김효심, 1987; 김선연, 1987)등이 있다. 이외에 모·녀세대의 성역할태도(박선영·정옥분, 1989)성역할과 창의성과 관

계(최보가·구순주, 1986) 등의 연구가 있다.

직업 및 활동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발달을 연구한 것을 보면 연령증가에 따라 남성지배적인 직업 및 활동에 대해 남자들이 여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대체로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더 고정관념이 강했다. 또한 남자는 여자보다 장래희망에서 자신의 성과 일치하는 선택을 더 많이 한 반면 여자는 불일치하는 선택을 더 많이 했다(조성원). 정명숙(1983)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기성세대보다는 청년세대가 안동보다는 서울이 양성동화적으로 나타나 성역할에 대한 이상성이 성과 근대화 변인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모·녀세대의 성역할태도를 보면 어머니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청년기자녀들은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보였다. 양성적 특성이 현대 사회의 이상적인 성역할로 지지되었으며, 사회적 유용성 및 자아존중감에 양성성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이숙). 어머니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청년기의 딸은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이며, 어머니의 높은 교육수준과 전문직종의 경험은 딸의 성역할태도를 근대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정우·정종희). 맞벌이가족의 청소년들이 부부중 한 사람이 생계를 전담하는 전통적인 가족의 청소년들보다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였다(Stephan & Corder, 1985).

한국과 미국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존감에 관한 연구를 보면 두 문화에서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미국에서는 남성성이 한국에서는 양성성이 개인의 자존감을 설명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옥분). 또한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실현성과의 관계에서는 양성성과 남성성 양자가 개인의 자아실현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의

자아실현성을 설명하는데 중요 결정요인이 양성성인지 남성성인지는 밝히지 못했다(김선영, 1987). 최보가, 구순주(1986)의 연구에서는 양성성과 양성성은 창의성이 높고 여성성과 미분화형은 대체로 창의성이 낮아 성역할유형에 따라 창의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보면 양성성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연구(이재연, 1983; 이숙, 1984; 정옥분, 1986)가 있는 반면 남성성집단이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연구(Zuckerman, 1980)가 있고, 양성성과 남성성 집단이 자아존중감, 자아실현, 자아정체감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연구(윤미현, 1983; 최인하, 1988)가 있어 결과에 일관성이 없다.

성역할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양성성이 가장 융통성 있는 성역할 유형이라고 보고한 반면 남성성이 보다 효율적인 성역할 유형이라고 하는 연구 또한 상당수 있어 현재로서는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또한 성역할태도는 성과 세대, 근대화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III. 가정학에 있어서 청소년 연구의 과제

가정학에 있어서 청소년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그러나 그동안 수행되어온 청소년에 관한 많은 연구는 일부 연구를 제외하면 연구의 대부분이 현상파악과 문제진단에 그치고 있어 청소년문제의 근본 대책 수립에 있어 적극적으로 공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청소년 연구는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좀 더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청소년 문제는 가정과 학교, 사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특히 청소년의 성격형성의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의 핵심적 관계인 부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실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결혼 가정과 불우 가정에서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서도 세심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의 발달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 문제, 이성교제, 배우자 선택, 결혼, 가족의 중요성 및 가족관계, 부모역할, 의사소통의 기술, 성역할, 직업준비,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아울러 청소년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개발, 실시되어야 한다.

3. 청소년 연구는 가정학뿐만 아니라 인접 학과와의 협력체제를 이루어 학제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가정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체육학 등 여러 학과에서 각각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좀 더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각 학과간의 긴밀한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학 연구와 청소년복지 정책 연구와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청소년복지를 위한 제도, 시설등을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정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 약화되므로 가정에서 할 수 없는 기능들을 사회가 대체해 주어야 되기 때문이다.

4. 청소년 연구는 현재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사후 문제 해결방식에서 탈피하여 문제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IV. 결 론

그동안 청소년연구는 아동연구에 비해 극히 미약하였다. 이는 인생의 초기 경험을 주로 강조해왔고 청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갈등과 방화하는 시기라는 것이 지배적이어서 연구대상으로 다루기가 힘이 들고 기본적인 발달과정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와서는 그 양상이 달라졌다. 최근들어 연구경향이 평생연구의 방향으로 나아감과 더불어 청소년기를 인생에 있어서 뚜렷한 특색있는 제2기로 여기고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가 매우 활발해졌다.

이러한 청소년 연구의 중요성에 비추어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가정학분야에 있어서 청소년 연구의 동향은 가족학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연구 영역에 있어서 성과 성교육, 결혼관과 가족가치관, 자아개념과 자아정체감, 부모자녀관계, 성역할로 그 주류를 분류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현상파악과 문제진단에 그치고 있어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공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서는 가정에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요망되고,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학문과의 학제적인 연구와 아울러 청소년 문제를 사후 해결하는 방식에서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만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완숙(1983), 청소년기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태도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서울대 석사논문.
- 강준상(1971), “중·고교생의 성에 대한 태도”, 가족계획, 대한가족계획협회.
- 경북교육위원회지정학교81982), 여고생의 성교육을 위한 자료개발과 그 실천 연구, 문경고등학교 연구 중간보고서.
- 고경미·서병숙(1988), “대학생의 효행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권 1호.
- 고성혜(1982), 청년기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수행, 서울대 석사논문.
- 고정자(1979), “여대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17권 2호. 6.
- 김경숙(1987), “부모와 청소년자녀사이의 갈등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15집, 관동대.
- 김경신(1986), “자녀의 부모선택태도와 그 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4권 1호.
- 김경신(1987), “부모와 대학생자녀의 가치관과 가치전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5권 3호.
- 김경신(1989), 부모와 대학생자녀간의 가치전달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김경희(1984), “한국직업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노동관, 미래관 및 독단주의와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제5집.
- 김경희(1977), 미혼여성의 시어머니관, 서울대 석사논문.
- 김미란(1985),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대한 관련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 김미숙(1987), 한국 청소년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 김서영(1987), 청소년기 자녀가 부모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대 석사논문.
- 김선영(1987),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양성적 성역할정체감과 자아실현성 및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 고대 석사논문.
- 김선에·연진영(1989), “대학생의 자아정체감형성과관련 변인”, 아동학회지 10권 2호.
- 김순옥(1983), “가족구성원의 상호관계가 청소년의 가정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1권 2호.
- 김순옥·유점숙(1984),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가족가치관에 관한 실증적 연구”, 논문집 제29집, 전남대.
- 김명자(1978), “여학생의 자아개념과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6권 4호.
- 김일명·김명자(1989),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권 1호.
- 김정옥·고은애(1987), “시청장애 중·고등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가정생활연구 제2집, 대구대.
- 김정옥(1988), 학교 성교육의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 중대 박사학위논문.
- 김정옥(1989),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의식 실태에 관한 문헌연구”, 가정생활연구 제3집, 대구대.
- 김정희(1987), 어머니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대 석사논문.
- 김진숙·유영주(1985), “어머니와 청년기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권 1호.
-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자녀간 의사소통과

-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대 석사논문.
- 김철자(1977), “인천 교대생의 결혼관 조사연구”, 학생지도연구 5집, 인천교대.
- 김행자(1987), 청소년기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생활문화연구소, 연구보고 10, 전국대.
- 김혜선·김영희(1983), “배우자 선택과 성의식에 관한 연구(1)”,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권 2호.
- 김혜선·김영희(1984), “배우자 선택과 성의식에 관한 연구(2)”, 논문집 제3집, 한국방송통신대.
- 김혜선·김영희(1986), “한국·미국·일본 여대생의 배우자 선택과 성의식에 관한 비교연구”, 논문집 제5집, 한국방송통신대.
- 김혜선·신양재(1988), “대학생의 결혼관 및 성의식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8집, 한국방송통신대.
- 김호심(1987), 여대생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자아실현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 김희영(1986),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 변인과의 관계, 연대 석사논문.
- 노영남(1982),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 거리 및 관계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권 4호.
- 노영주(1987), 세대차이에 대한 청년기 대학생 자녀의 부모의 지각 불일치, 서울대 석사논문.
- 문혜숙(1978), 이상적인 가족관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 박경란(1985), “모·녀세대의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 인제논총 제3권 2호, 인제대.
- 박금희(1986),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화합도와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청소년의 불안수준과의 관계, 서울대 석사논문.
- 박길현(1984), 아버지 역할에 대한 남자고등학생의 의식, 이대 석사논문.
- 박선영(1988), 청년기자녀의 성역할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고대 석사논문.
- 박성선(1986), 모의 직업 및 자각된 양육태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 박성연(1986), “자녀에 대한 가치관”, 대한가정학회지 24권 4호.
- 박진숙(1984), “대학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권 3호.
- 박초아(1988), 청년기 대학생자녀와 부모간의 가치합의와 자녀가 자각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간의 관계, 서울대 석사논문.
- 석현양(1983), 가정의 의사전달형태가 청소년의 자아개념형태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 석사논문.
- 송재희(1989), 대학생들의 이성교제 실태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 염복섭(1982, 중학생들의 성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의식조사, 조선대 석사논문.
- 오경옥(1986),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의관계연구, 원광대 석사논문.
- 오연옥(1987), 사춘기자녀와 어머니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숙대 석사논문.
- 오옥자(1976),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 옥선화(1987), “자녀문제와 대책”, 부모와 자녀의 대화, 청소년 지도 육성회.
- 이결남(1989), 어머니와 여고생간의 커뮤니케이션과 내용에 관한 연구, 숙대 석사논문.

- 이경주(1989), 어머니와 청년기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 이제화(1988), 중·고등학생의 성문제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 이숙(1984), “한국 대학생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발달 및 자아존중감과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권 1호.
- 이순열(1986), 자녀양육에서의 아버지역할에 대한 남녀 고등학생의 의식조사, 이대 석사논문.
- 이연주(1980),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태도와 자아정체감과와의 관계, 서울대 석사논문.
- 이영석(1980),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태도와 자아정체감과와의 관계, 서울대 석사논문.
- 이정우·김규원(198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및 만족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권 3호.
- 이정우·정종희(1984),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 1호.
- 이재선(1987), 중학생의성역할태도와 가정환경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건대 석사논문.
- 이재연(1983), “여자대학생의 장래계획과 성역할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아세아여성연구 제22호, 숙대.
- 이준재외(1988), 청년심리학, 서울:중앙적성출판사.
- 이향연(1986), 사춘기자녀와 부모와의 대화활동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논문.
- 유가호(1986), “학동기이후 자녀에 대한 농촌 아버지의 역할”, 과학논집 12집, 계명대.
- 유영주(1976), “한국가족에 있어서의 결혼연구”, 인문과학연구소 제2집, 인하대.
- 윤미현(1984), 여고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대 석사논문.
- 유점숙(1983),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가족문화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 윤봉숙(1984),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적응력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 위영희(1988), “청년기의 심리적 발달과 부모자녀관계”, 학생생활연구 제8집, 서원대.
- 전미향(1988), 대학생의 전통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 경북대 석사논문.
- 전영자(1986), 여고생 가족가치관의 전통성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장근화(1984), “남녀고교생의 가치관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권 2호.
- 장호선(1987),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성심여대 석사논문.
- 정명숙(1983), 근대화과정에 따르는 성역할의 양성동화현상, 한양대 석사논문.
- 정성채(1981), 여고생들의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조사연구, 이대 석사논문.
- 정옥분(1986), “한·미 양국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존감에 관한 비교문화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권 2호.
- 정현아(1984), 여대생의 자아실현성에 따른 결혼관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 정혜영(1986), 십대자녀와 부모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석사논문.
- 정효숙(1978),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의 가족형태에 대한 가치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6권 3호.
- 진영옥(1983), 중등학교 교사들의 성교육에 대한 의식 및 실태 조사연구, 충남대 석사논문.

문.

- 조성원(1987), 직업 및 활동에서의 성역할 고정 관념발달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 조영숙(1980), “전문대학 여학생의 결혼관에 대한 조사연구”, 논문집 제17집, 순천농업전문대.
- 조은경(1984), “기능적인 가족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 1호.
- 조재명(1981), 여자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 내용 탐색, 충북대 석사논문.
- 최보가·구순주(1986), “청소년의 성역할유형과 창의성과의 관계”, 논문집 제18집, 경북대.
- 최인하(1988),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고대 석사논문.
- 최영애(1984), 가족의 심리적 환경에 따른 정상·비행청소년의 가치관 비교 조사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 최점화(1986), 청소년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 최혜경(1987),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 성심여대 석사논문.
- 허귀선(1984), 대학생의 자아정체 수준과 성격특성과의 관계
- 황덕순(1980),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금전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8권 2호.
- 박선영·정옥분(1989), “청년기자녀의 성역할 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7권 4호.
- Barnes, H & Olson, D.H.(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Bloch, D.(1972), Sex Education Practices of Mothers, *Journal of Sex Education and Therapy*, 7, 7~12.
- Dusek, J.B. & Flaherty, J.F.(1981), The Development of the Self-Concept During the Adolescent Year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6(4).
- Fox, G.S. & Inazu, J.K.(1980), Mother-Daughter Communication About Sex, *Family Relations*, vol. 29(3).
- Kalish, R.A. & Johnson, A.I.(1972), Valu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ree Generations of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34, 49~54.
- Leavy, R.L. & Hough, O.B.(1983), The Value and Cost of Children Cross-Generational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Among Pare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2.
- Lynn, D.B.(1974) The Father: His Role in Child Development, Monterey,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
- Marcia(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Wiley.
- Rothenberg, P.B.(1978), Mother-Child communication about Sex and Birth Control,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Atlanta, GA.
- Simon, W., Berger, A.S. & Gagnon, J.M.(1972), Beyond Anxiety and Fantasy: The Coital Experience of College Youth, *Journal of Sex Research*, 9, 1~12.

- 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
- Smith, T.E.(1982), The Case for Parental Transmission of Educational Goals: The Importance of Accurate Offspring Percep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4, 661.
- Stephan & Corder(1985), The effects of Dual-career Families on Adolescents' Sex-role Attitudes, Work and Family Plans and Choices of Important 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7(4).
- Thompson, L. & Spanier, G.B.(1978), Influence of Parents, Peers and Partners on the Contraceptive Use of College Men an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0, 481.
- Zelnik, M. & kantner, J.F.(1977), Sexual and Contraceptive experience of Young Unmarried Women in the United States, 1976 and 1971,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9, 55~71.
- Zuckerman, D.M.(1980), Self-esteem, Self-Concept, and the Life Goals and Sex-Role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48, 149~162.

<ABSTRACT>

The Trend of Researches and the Subjects on Adolescence in Home Economics

Young-Ju Yoo, Jin-Sook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 of researches on adolescence in home economic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Researches on adolescence have been since 1970, considerable amount accumulat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e researches have been analyzed into five major domains:

1. sex & sex-education.
2. value of marriage & family.
3. self-concept, self-identity.
4.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5. sex-role

The major contributions and problems inherent in each domain are identified. It is a pity that most of research is grasping realities and problems on adolescence rather than considering counterplan of problems.

Therefore, research on adolescence is need to specify and study deep into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to develop and practice education program for a healthy development of adolescent; to study an interdisciplinary research.